

<우수작>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해,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고발한다.

- KBS · MBC · SBS의 고발성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성매매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김향수

들어가며

성매매는 사회악인가 필요악인가? 성매매방지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는가, 공창제를 실시해야 하는가? 지난 1년간 ‘성매매’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필자는 성매매를 반대한다. 만물의 영장 인간의 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 성산업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켰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말 할 것도 없다.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성매매는 근절해야 했다. 그 결과 사문화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여 지난해 9월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¹⁾이 시행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고발성 시사보도프로그램들이 ‘성매매’문제를 접근하는 각도가 달라졌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맞물려 갈 수 밖에 없다. 과거에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고발’만으로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전과 같을 수 없었다.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구체적 이해관계와 부작용을 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됐다.

필자는 방송 3사에서 방영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KBS <추적 60분>, <사건취재 4321>, MBC <시사매거진 2580>, <암니옵니> SBS <그 것이 알고 싶다>에서 ‘성매매’를 소재로 다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들 프로그램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담당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매매방지법’이라 칭하겠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성(性)문제’는 고발성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다. 성문제가 정치, 국방, 경제적 이슈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왜곡된 성문화와 기형적 성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고발로 시청자들은 ‘성문제’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에 눈뜨기 시작했다. 사회적 여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결실로 성매매방지법이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고발성 시사보도프로그램에도 투영됐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성매매가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여겨졌던 과거와 대조를 이룬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에는 방송에서 성매매여성을 가르켜 ‘윤락녀[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MBC 시사매거진2580 04. 2. 22)’ 혹은 ‘유홍업소 종업원 [성매매 여성을 성을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보지 않고 고용-피고용 관계로 보는 시각](KBS 추적60분 04. 2. 25)’이라 표현했다. 지금은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보도한다. 유홍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들의 생활이 사치스럽다는 식의 도덕적 잣대도 사라졌다. 성매매 여성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 정당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자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생긴 변화다.

‘성매매’를 다루는 방송의 자극적이며 선정적 보도도 사라졌다. “매춘 아르바이트” “윤락녀의 반란” “천호동 텍사스의 불은 꺼졌는가?”와 같은 제목이 “성산업 24조, 누가 성매매를 부추겼나” “성매매방지법, 그 후 200일”등으로 바뀌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불필요하게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던 사례도 줄었다. 고발과 개혁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이 오히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의 결과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후 단속이 심해져 성매매가 음지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성매매 보도 내용의 변화

법 만능주의자가 아니라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단속으로 모든 성매매가 근절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생긴 현실적인 문제들에 이들 방송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에는 이들 방송이 성매매라는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었다. 지금은 성매매가 없는 사회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문화와 기형적 성산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의 당위론적 접근을 뛰어 넘었다. 성매매방지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발하며,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통을 극복하는 방안을 시청자들과 함께 찾아 나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방송된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과정에서 생긴 여론의 쟁점이나 탈 성매매, 장애여성 성매매, 기지촌 성매매 등의 특화된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다.

KBS <추적 60분 '나는 탈출했다-어느 성매매 여성의 고백(04. 11. 3)>편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에도, 성매매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요인들을 다루었다. SBS <그 것이 알고 싶다 '성매매? 인신매매! - 장애여성을 파는 사람들(05. 6. 11)>편에서는 성매매 장애여성들이 갖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안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장애여성의 탈 성매매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지촌 매춘 커넥션(05. 3. 27)>편에서는 오산미군기지에서 미헌병대원들이 인근 유흥업소에 성상납과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보도했다. 성매매방지법 적용의 예외 지역인 기지촌 성매매 외국인여성 인권문제를 고발했다. SBS <그 것이 알고 싶다 '성산업 24조원, 누가 성매매를 부추겼나?(04. 11. 20)>편에서는 성산업을 심층 취재해 성매매여성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산업 구조와 국가의 역할을 고발했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후 찬반논쟁이 뜨거운 부분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 과정과 장애여성, 기지촌 여성의 성매매를 통

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 성매매 없는 사회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과제를 도출해 나가면서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당국의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100일, 200일을 맞아 시행 과정에 대해 돌아보며 성과와 보완점을 다룬 사례들이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성전 18일'(04. 10. 10)>와 MBC <암니옵니 '성매매 방지법, 그 후 200일(05. 4. 15)>, KBS <취재파일4321 '기로에 선 성매매 특별법'(04. 12. 19)>은 성매매방지법 찬반여론, 단속 현장, 탈 성매매 과정, 핸드폰·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 법 집행의 일선 공무원들과 성매매업주의 유착,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건을 보도하였다.

서술했듯이 전에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보도가 주였다. 지금은 법망을 뚫고 계속되는 인권유린이 보도된다. 성산업을 둘러싼 구체적 이해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통합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다루게 됐다.

여전히 반복하는 관습과 극복방안

이들 프로그램에 부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아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이 요구된다.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지촌 매춘 커넥션'(05. 3. 27)>편의 제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매매를 '매춘'이라고 표현했다. 성을 봄에 비유하고 있는 '매춘'이라는 말은 성욕을 새 생명이 돌아나듯 자연적인 것으로 포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할 소지가 있다. 방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바르게 표현한 '성매매'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날 방송 분에서 퇴폐적인 카메라의 시선과 자극적 영상이 불필요하게 반복됐다. 미군전용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는 여성을 풀 샷(Full Shot)으로 찍으면 여성들의 전신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가까이서 찍으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로 앵글(Low Angle)로 찍어 다리와 둔부를 강조했다. 이 영상자료가 프로그램의 전개와 상관없이 수차례 반복됐다. 시청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한 퇴폐적 영상을 보게 되었다. 전보다 빈도가 줄었다고 해도 퇴폐적인 카메라의 시선과 불필요하게 선정적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방송	인터뷰
MBC <암니옵니 '성매매방지법, 그 후 200일'(05. 4. 15)>	기자 : “여기서 영업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성매매여성 : “알죠. 개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래방으로 가라고”
SBS <그 것이 알고 싶다 '성매매? 인신매매!(05. 6. 11)>	기자 :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탈성매매 여성 : “회사요” ...중략... 기자 : “벌써 이만큼 하는 거야?” 탈성매매 여성 : “네”
KBS <추적 60분 '나는 탈출했다'(04. 11. 3)>	진행자 :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것을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군요” 취재 기자 :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취재진의 왜곡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취재진은 성매매 여성에게 거리낌 없이 반말을 사용한다. 위장 취재라고 해도 듣는 시청자는 불편하다. 장애인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비정상인 사람이라는 편견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화도 있었다. 분명히 성매매 여성도, 장애인도 제작진에 의해 무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내려다보아도 안 되며,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이 전파를 타고 안방으로 전해져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화면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기술적 장치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성매매? 인신매매!(05. 6. 11)>편에서는 탈 성매매를 한 장애여성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보도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성매매에 대해 묻고, 어머니의 상처를 들추어 낼 수밖에 없는 인터뷰였다. 굳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인터뷰 대상자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생중계인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성매매를 다룬 시사보도프로그램 중 일부에서 씩씩한 기분을 느꼈다. 성매매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딪혀야 하는 난관이 많다는 점을 깨달아서 드는 씩씩함만은 아니다. 이들 방송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며 끝난다. 문제는 논리 전개의 부적절함과 해결방안을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점이다.

KBS <취재파일4321 '기로에 선 성매매특별법'(04. 12. 19)>편은 '곧 성매매방지법은 풀릴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생계형 성매매여성들과 성산업 관련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음성적 성매매 등 성매매방지법 이후의 부작용을 나열해 보여줬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기 위해서 단속이라는 채찍과 관심과 지원이라는 당근이 절실하다며 방송을 마친다. 과연 성매매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성전 18일'(04. 10. 10)>편은 과연 성매매는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긴 안목과 치밀한 계획, 남성들의 성의식 변화, 성매매여성이 일할 만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의 원론적이지만 한 대안을 제시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들추어내는 것에는 익숙하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는 슬며시 꼬리를 감춘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마치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생중계하는 스포츠 중계방송 같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가'는 경기를 중계하며 관전 포인트와 현황을 짚어주다가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자'며 끝낸다. 당위적 결론은 성매매를 근절하는 노력에 대한 무용론을 유포한다. 중계식 보도는 사회의 일원인 시청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킨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은 '냉철한 사회비판의식'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생명이다. 애정 없는 비판은 패배주의만을 유포한다. 성매매라는 구조적 모순을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을 생산하지 못한다. 여성의 성이 착취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작진의 애정이 요구된다. 방송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애정과 책임감, 진정성이 클수록, 성매매를 다루는 이들 방송의 논리구조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맺으며

방송이 성매매방지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짚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대, 다양화된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수많은 과제가 제출되었다. 그 누구도 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들 프로그램이 '성역 없는 비판과 고발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기획의도를 가졌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이들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와 기형적 성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은 여성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초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람의 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길고 험한 여정에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일년 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매매의 실체를 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앞으로 성매매 없는 사회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력 확보에 달려있다. 남성중심적인 성의식의 변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관건이 될 것이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이들 방송이 '성매매'를 다루며 보여준 애정과 책임감이 지속된다면,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